

24. 아담에서 바벨까지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계시되었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역사가 계시되었다. 그 사이에 노아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나온다. 여기서 두 길이 갈라진다. 이것을 하나님 동산에서 바벨까지 총 정리를 해 보겠다.

‘사람은 우연히 생겼는가, 저절로 생겼는가? 무슨 미생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저주를 말하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미생물에서 진화한 것이 증명되어서 맞다고 해도 그렇다면 사람은 저주받은 존재다. 목적이 없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목적이 있어야 필요가 있고 필요가 있어야 보람이 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이다. 내 근원을 말한 것이다. 나는 그 근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목적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기를 표현할 형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2장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형상으로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흙으로서는 그 생명을 증식시킨다는 뜻이다. 이보다 인간에게 복된 계획이 어디 있겠는가! 누가 이런 계획을 하겠는가. 지으신 분이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계획 안에서 지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존귀한 것이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생명나무의 길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 두 길을 제시하셨다. 생명나무의 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형상화하기도 하고 증식시키기도 하는 역할을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타낼 때는 하나님 같은데 나타내지 않을 때는 인간이다. 예수께서는 완전하

게 하나님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것 때문에 헛갈려서 사람들은 예수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세상에 반신반인인 존재는 없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원숭이인 존재도 없다. 하나님도 그러실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히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야 되고 사람은 사람이라야 된다. 이 둘이 연합해야 하는 것이다. 둘이 연합해서 한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사람은 연합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연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연합을 빼놓고 '예수는 누구냐?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해도 안된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지 않고 어떻게 자식을 낳겠는가. 그것이 연합이다. 연합한다 해도 둘이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남자는 남자로 있고 여자는 여자로 있다. 그런데 거기서 아들을 낳는다. 이것이 연합이다.

그러나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 연합이 파괴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합이라는 개념이 없다.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지식밖에 모른다. 생명의 세계를 모르는 것이다. 그 지식의 세계를 가지고 아담에서 바벨까지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것은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도 그대로 있는 사실이다. 이것을 잘 알고 세상을 보면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면 '아,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 이것은 공부하거나 찾아서 알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역사 공부를 해 봐도 안된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아담은 동산지기로 임명받았는데 그 직분을 버렸다.

이것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었다며 불순종이라고 해석한다. 교만한 것이고 욕심이라고 해석한다.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수양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쳐질 수 없다. 길이 다른데 어떻게 고쳐지겠는가.

사람은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생명의 노선이나, 아니면 지식의 노선이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3장부터 11장 중반까지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상태를, 아담에서 바벨까지 전개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안에 들어 있고 모든 역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깊이 생각해 볼수록 하나도 빼놓을 것이 없다. 곁에 살은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저렇게 붙이기도 하지만 내

용은 같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옛날과 지금이 다르다. 그런데 옷을 입은 인간은, 프레임은 똑같다. 집을 지어 놓으면 거기 붉은 페인트를 칠하느냐 푸른 페인트를 칠하느냐만 다르지 뼈대는 같다. 이 안에서 역사가 다 보인다. 미국이 왜 저런지, 중국이 왜 저런지 다 보인다. 사람들은 선악과의 길에서 역사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그것밖에는 안된다.

사람은 동산지기의 직분을 맡았다.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할 직임을 맡았다.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인격화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니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가!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이었다.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이 나타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보였던 것이다. 나타나서 그렇게 보인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타나니까 그렇게 보인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렇게 된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나는 사람이다.

밭에 콩을 뿌려서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가 나오면 콩밭이 된다. 그렇다고 밭이 콩인가? 콩을 가져가고 나면 도로 밭이다. 신기한 것이다. 그래도 흙은 콩이 무성해졌을 때 거기서 영광을 받는다.

아담은 이 위치를 잃어 버렸다. 모든 축복을 잃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두려워 숨었다고 한 것이다.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은 위치가 없다는 말이다. 다른 것은 이것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다.

헛된 길에서 헤매면 그것이 저주다. 저주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찾아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길을 제시했는데도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지겠는가. 길이 보이지 않으니 그렇게 하겠지만 길이 보이면 가야 되는 것이다. 길을 보고도 또 찾아보겠다고 하면 끝도 갓도 없다. 인생이 한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동산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는 어디 있느냐?”

냐?”라는 질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 아담은 거기를 떠났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던 것이다.

인생은 너무나 귀중하다. 나보다 크신 이, 나보다 앞에 계신 이, 나보다 먼저 계신 이가 목적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위엣 사람이 중요하다. 내 아버지가 임금이라면 나를 왕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나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낳았다고 하면,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가치가 없어진다. 요즘 사람들은 목표가 있다는 것을 거부하려고 한다. 자기가 그 목표에 의해 제한받기 싫다는 것이다. 목표가 없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가치가 없다. 스스로 가치 없는 인간이 되려면 목표를 거부해도 된다. 사람들은 인생이 목표가 정해졌다고 하면 ‘내가 확실히 모르면서 목표에 매여서 종노릇해야 한다는 말이나?’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나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보겠다고 한다. 찾기는 어디서 찾겠는가. 사람은 스스로 목표를 세울 수 없다. 아무리 세워봤자 헛일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결정되어 있다. 사람으로 결정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찾아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존재라면 몸뚱이는 이렇게 만들고 힘은 이 정도로 세게 하고 머리는 이 정도로 좋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기계를 만들듯이 만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사람으로 생겼을 뿐이다. 우리 생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눈이 돌인 것도 내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코구멍이 돌인 것도 내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것이 어째서 있는가를 알아야 되지 이것 저것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데 찾으려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모든 물건을 보면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 나무로는 백 층짜리 집을 지을 수 없다. 생기기를 나무로 생겼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옛날에는 겨우 2층까지 지었는데 철근이 생기고 쇠가 들어오면서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정해진 것이다. 나무로 지은 집은 몇 층 이상 못짓는다고 정해져 있다. 내 생각과 관계없다.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안되고 더 높게 짓고 싶어도 안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지어졌다. 이것이 복이다. 여기서 시작해야 갈 데가 있고 할 일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모르고 인생을 헤매다 끝난다. 답이 없으니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다가 끝나는 것이다. 소위 현

대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지성이라고 생각한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자기가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대로 자기를 찾아서 돌아다녀 보겠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아무리 기고 날아도 우리는 물 속에서 물고기처럼 살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육지에 살도록 지어졌다. 고래같은 동물은 물 속에 살기 때문에 계속 숨을 쉬러 나와야 한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겠는가. 아주 훌륭한 생각 같은데 어리석은 짓이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로 집을 지어야 되고 쇠가 있으면 쇠로 지어야 되지 나무로 쇠 집을 지으려고 하면 되겠는가. 인생의 분수를 모르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는 우연히 생기지 않고 내게 목적을 두신 분이 있어서 지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지으신 분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이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마다 목적이 정해졌는데 그 목적 중에 이 보다 좋은 목적이 없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주인의 형상을 따라 주인의 모양대로, 주인을 표현하고 주인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다. 이보다 귀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 해도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다. 이것을 벗어나면 인생을 찾을 수 없다. 아무리 찾으려 해도 안된다.

사람에게는 두 길이 있다. 생명나무의 길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길이다. 생명나무의 길에서 사람은 동산지기가 되는 것이다.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다. 무엇을 경작하고 지키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격 안에 받아서 인격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작업을 하도록 사람을 동산에 두셨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이 그냥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려면,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면 그냥 꺾데기만 갖고 되겠는가. 꺾데기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냥 꺾데기가 아니다. 그분과 생명이 교감될 수 있는 존재라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집집마다 TV 수상기가 있지만 방송국에서 방송을 안하면 아무것도 안나온다.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 별것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방송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방송국이 있으면 아주 놀라운 기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TV를 사는 것이다. 형상이라는 것이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방송국이 있어도 TV 수신기가 없으면 방송국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방송을 하려면 반드시 방송국이 있어야 되고 TV 수신기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은 그런 뜻이다. TV가 단지 로봇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방송이 시작되기만 하면 아주 신기한 기계가 된다. 그러나 방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TV 수신기 안에는 많은 것이 내장되어 있다. 그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다.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된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다. 그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부분적인 것을 보았는데 예수 안에서 완전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까지 말한 것이다.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들이다. TV는 방송국이 아니지만 방송을 그대로 전달한다. 사람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생명나무의 길을 떠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의 길을 택했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이 사라져 버렸다. 유린당하고 말았다. 어제까지 대장이었고 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가 많았어도 계급장을 떼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단장은 만 명 이상이 자기 밑에 있다. 명령만 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 그러나 사단장에서 떨어지고 나면 일등병도 자기 말을 안듣는다. 사람이 생명나무의 노선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었을 때는 우주 안에서 가장 존귀하지만 그 길에서 떠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대장이던 사람도 길가에서 군밤장사하는 사람만 못하다. 아무것도 없게 되니까 어디가도 돈 벌 자리가 없다. 아담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것이 인생의 불행이다. 잘 먹고 잘사는 것이 행복이고 못먹고 못사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인간이 무가치하게 되어 버린 것이 불행이다. 고생을 하더라도 가치있는 일이라면 고생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고생을 해 봤자 가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하는 생각 밖에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판가름났다. 생명나무의 노선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존재가 될 것

인가, 아니면 목적도 없고 일도 없는 인간이 되어 제멋대로 이렇게도 살아 보고 저렇게도 사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런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것은 강자가 약자를 죽이는 형국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이 자기보다 나은 것을 볼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따를 수 없다. 아벨의 제물은 받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은 분노해서 아벨을 죽인 것이다.

이것은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제사가 아니라 헛된 제사 안에서 강자가 약자를 죽인 것이다. 이것이 종교 역사의 시작이다. 종교가 그렇게 되었다. 약할 때는 어린양 같다가 강해지면 늑대같이 되어 버린다. 가인은 계속 그런 길을 가고 있고 아벨은 억울하니까 제단 아래서 신원하고 있다. 원통하니까 원수를 갚아달라고,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쌓았다. 에녹의 후손들은 농사짓는 자, 통소 부는 자,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문명이 시작된 것이다.

알고 보면 문명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동산을 떠나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다. 마지막 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발달해도 문제고 발달하지 않아도 문제다. 옛날 전쟁은 주먹으로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몽둥이로 했을 것이고 활로 했을 것이고 말 타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미사일, 핵으로 한다. 심지어는 세균전쟁까지 있다. 앞으로 세균전이 벌어지면 무서운 전쟁이 될 것이다. 총탄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세균이다. 총탄은 적을 향해서 쏘니까 전쟁 중에 군인이 죽은 것보다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다. 한국전쟁 때도 군인보다 민간인이 훨씬 더 많이 죽었다.

이 한 단원의 역사가 가인에서 끝났다. 그리고 그 후손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아담은 다시 셋을 낳았다. 그래서 셋의 후예가 바벨론까지 간 것이다.

셋의 후손들은 십 대까지 한 사람이 팔백 년, 구백 년을 산 장수족이다. 십 대가 팔백 년을 살았다고 하면 팔천 년이 지났겠지만 그 사람들은 낳고 커서 장가가고 자식을 낳고 죽은 것밖에 한 것이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원시적인 상태에서 인간을 보면 그러하다.

지금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다른 것 같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아무 목적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허무해져 버린다. 잘 사는 나라에서는 자살률이 높다고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에서 다 해 주니까 그나마도 할일이 없게 되었다. 밥 먹고 놀고 살면 된다. 학교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가도 된다. 학교를 나오나 안나오나 별 차이가 없다. 자기 좋을 대로 산다. 그런데 허무해진다. 묘하게 결국은 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

가봤자 거기다.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잘 살면 밥을 더 먹고 고기를 더 먹고 문명의 혜택을 더 받는다. 사회가 굉장한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간단하다. 다 먹고 입고 살기 위한 일이다. 셋의 후예들은 장수족이 되었으나 허무를 들어냈고 결국은 다시 흠으로 돌아갔다.

그 다음 세대는 네피림이다. 사람과 천사가 결합한 세대다. 사람이 최고로 소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사람 속에는 천사의 성분이 없고 천사에게는 사람의 성분이 없다. 그러니까 둘이 합해지면 아주 막강한 힘이 생긴다. 하나님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사람과 천사가 결합했으니 통제가 안된다. 통제 불가능한 인간이 된 것이다.

땅을 파괴하게 했다고 하였는데 땅은 사람에게 주신 첫째 축복인데 그것을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오직 힘과 힘의 대결만 남은 것이다. 지금 세계를 보면 국제사회에서는 이해관계가 중요하고 누가 힘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도덕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유엔 총회를 만들어 놓았어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 한다. 아프리카 사람이 의장을 해도 실권은 강대국이 갖고 있다. 세상은 어디 가도 네피림이다. 안정보장 이사회에는 강대국만 들어갈 수 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가는 길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허무를 향해서 가는 길과 포악한 길, 두 길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 보면 역사가 눈에 훤히 보이고 세상 이치가 보인다. 미국이 왜 저렇고 중국이 왜 저런지 보인다. 그런 세계에서 까불고 잘못 놀다 보면 혼난다. 작은 사람은 작은대로 살아야 하고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살아야 하는데 작은 사람이 큰 체하다가는 얻어맞게 마련이다. 세상 이치는 간단하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인간을 보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화덕에 넣어서 굽는다. 그리고 일일이 검사해 보고 마음에 안드는 것은 그 자리에서 깨버린다. 그냥 나누어 주면 좋겠는데 자기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마음에 안드는 것은 다 깨버린다. 백 개를 만들어도 그 중에 쓸 수 있는 것은 몇 개밖에 없다. 후회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 이 후회하시면 절망이다.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기대를 갖고 계셔야 되지 ‘저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데 저것을 내가 괜히 만들었구나.’ 하고 후회하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홍수 후에도 사람들은 “뭉치자. 흠어짐을 면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시날 평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금 세상이 그러하다. 살아남으려고 동맹을 맺고 연합을 맺고 있다.

사람들은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며 바벨탑을 쌓았다. 이것도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이다. 계시는 영원히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가 모르던 것을 열어 보여 주는 것이 계시다. 없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일이고 지금도 있는 일이다. 계시는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다.

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원래 흙은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뜨거운 불에 구워 단단한 돌을 만들어 버렸다. 흙으로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농사를 못짓게 된 것이다. 아파트를 다 지어 버리면 농사를 못짓는다. 땅이 얼마 없는데 계속 집을 지으면 식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난 후에 어느 나라에서 식량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찌될지 모르니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을 수출하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땅은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흠으심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서로 교통이 안되게 된 것이다. 말이 없으면 교통이 안된다. 사람의 특성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짐승들도 자기들끼리는 통하겠지만 사람만큼 섬세하게 모든 뜻을 교통하거나 전달할 수 없다. 그런데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이 말은 아주 절망적인 말이다. 전혀 못할

아들게 된 것이다.

무슨 일을 하려고 작성한 사람은 남의 말을 못알아듣는다. 자기 편의 말밖에 못알아 듣는다.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는 정당이 있어야 독재가 안된다. 그런데 우리는 정당이 당파가 되었다. 조선왕조 시대의 당파처럼 교통이 안된다. 한쪽에서 강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분열된다. 정치는 이념을 없애야 한다.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이념이 생기는 것이다. 이념이 생기면 나라가 분열되어 버린다. 정치가 안되고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분열되어 있다. 남북이 분열된 것도 슬픈 일인데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분열되어 있다. SNS에 보면 양편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이래서 아담의 역사는 여기서 막을 내린 것이다. 고대국가에서 가장 문화가 찬란했던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라 했는데 바벨론은 혼잡이라는 뜻이다. 인간은 결국 바벨론으로 가고 바벨론을 소망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미국처럼 되고 싶고 중국처럼 되고 싶다. 바벨론이 되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역사다.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고 결말은 이와 같을 것이다. 새로운 것이 생기지 않는다. 이 뼈대 위에 뭔가를 붙일 뿐이지 구조는 같다.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자세히 보면 이것이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같다. 어느 때는 미국이 최강국이 되었다가 어느 때는 영국이, 어느 때는 프랑스가 되었다 했고 앞으로 미국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올지 모른다. 나라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시대도 다를 것이다. 그런데 프레임은 똑같다. 여러분은 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휩쓸려 다니지 않게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선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다니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된다.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은 다른 길이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노아를 부르셨다.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다.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를 예비 하라고 하셨다. 왜 노아가 선택되었을까?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었다. 어떤 시대인가? 네피림의 시대에서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인'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성경에서 의롭다는 말은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는 말이다.

노아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나는 날에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다. 한라산 꼭대기에, 백두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려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노아는 거기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지은 것이다. 믿음으로 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아서 그렇게 했겠는가.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다.

노아는 방주 안에 여덟 식구와 가축들과 음식을 실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이것은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할 수 있다. 신기하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 안에 만유를 포함하게 하셨고 또 노아 한 사람 안에 만유를 포함하게 하셨다. 그것이 이어져서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 만유가 포함되는 것이다. 다 하나씩 뛰어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것 저것 다 받아들여서 방주 안에 실었던 것이다. 정결한 짐승도 있었고 부정함 짐승도 있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만유를 포함할 수 없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으려면 그런 사람이라야 한다.

예수는 누군가? 자기 안에 만유를 포함한 사람이다. 완전히 하나님 같은 존재로부터 미물에 처한 존재까지 다 그분 안에 포함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사람이다. 십자가가 그것이다. 예수를 잘못 보았을 때 우리는 도저히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를 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그 안에 있다.

전에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들어갔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 기독교의 상징적인 소설인 천로역정을 보면 구도자가 천신만고 끝에 천성 입구까지 갔는데 호랑이 두 마리가 양쪽에서 지키고 있다.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 천성에 갈 수 있는데 무서워서 못들어간다. 에덴동산에 가려고 보니까 불길이 솟아올라서 못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로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삼켜 버리고 그분 자신의 것을 내게 주시는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셨다. 접붙여졌다는 것이다. 포함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포함된다.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불순종이고 교만한 것이고 욕심이 많은 것이라고 해석한다. 불순종, 교만, 욕심이 어디서 나왔는가? 위치를 벗어난 데서 나온 것이다. 위치를 벗어났다고 알면 쉬운데 언제 불순종이 다 해결되어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언제 인간의 교만이 끝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겠는가, 언제 인간의 욕심이 다 끝나고 백결선생 같은 사람이 되겠는가. 모든 종교가 그것을 노력하고 있지만 안되는 것이다. 위치가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위치에 있으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경찰관일 때와 도둑놈일 때는 전혀 판판이어서 서로 건널 수 없다. 왜 불순종이 일어나고 왜 교만과 불순종이 생겼는가?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이다. 사람으로서의 위치를 이탈했다. 그분의 형상으로서의 위치를 이탈했고 그분의 농장으로서의 밭에서 이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한 사람으로, 교만하고 욕심꾸러기로 보이는 것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적인 불순종도 없고 절대적인 교만도 없고 절대적인 욕심도 없다. 어떤 것을 상대해서 생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버리면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고치려고 한다. 교회 가면 맨날 하는 말이 “순종해라. 겸손해라. 욕심을 버려라.”라는 말이다. 교회만 아니라 절에 가도 그렇다. 그러나 불순종이나 교만이나 욕심은 사람의 위치를 떠나서 생긴 것이지 원래부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는 말에 속아놓고 나니까 그렇게 되어 버린 것이다. 일부러 불순종하려고 했겠는가. 불순종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긴 것이다.

충신과 간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임금에 따라서 신하가 충신이 될 수도 있고 간신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남이 잘못했다 해서 잘못했다고 평가하면 안된다. 그 사람의 위치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자기로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가 진실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도 잘한 것이 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위치를 바르게 하면 간단하다. 예수 안에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다.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인간이 제멋대로 살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인간의 모습은 없고 다른 모습밖에 안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 그런데 예수 앞에 가면 그것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진실 앞에 가니까 허위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거짓이 삼켜져 버렸다. 따로 없애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 가면 삼켜져 버린다. 그리고 형상과 흠만 남는다. 그러면 둘이 연합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고 쉽다. 알고 보면 기독교처럼 쉬운 것이 없다.

왜 쉬운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쉬운 것이다. 왜 어려운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안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저주가 다른 것이 아니다. 안될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저주다. 될 일은 하면 쉽다. 될 일만 찾아서 하면 쉽다. 여러분이 증권을 사더라도 오를 수 있는 것만 사면 다 돈을 벌게 된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하필이면 오르지 않을 증권만 산다. 그러니 머리를 써서 해도 떨어지고 떨어져서 깡통 고생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에 참여해야 한다.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된다. 다른 길에서는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안된다. 겸손해지면 못사는데 겸손해질 수 있겠는가. 다른 길에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만 안된다. 순종하면 손해니까, 욕심을 안부리면 못사니까 순종이 안되는 것이다.

길이 다른 길이라야 된다. 바다에 갈 때 필요한 것이 있고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등산복을 버리고 가는 것이다. 해군 바지를 보면 나팔바지다. 바다에 빠졌을 때 바지가 벗겨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산에 갈 때는 그런 바지를 입으면 걸그친다. 필요한 데 가면 필요하지만 다른 데서는 필요가 없다. 필요하니까 욕심이 나지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 욕심도 안난다. 그러므로 위치를 바꿔야 한다. 이것이 구원의 첩경이다.

위치를 일부러 바꾼 것이 아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었다는 말이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괜찮으니까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시키겠는가? 여러분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불러서 시키지 않겠는가. 구원의 시작, 이것은 관계의 문제다. 구원은 관계의 문제다. 내가 수양을 하고 무엇을 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구원이 아니다.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길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물고기는 물 속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거북이는 알을 까서 바닷가 모래 속에 넣어 놓는데 거기서 새끼가 부화하면 그 조그만 것이 나오자마자 바다쪽으로 결사적으로 간다. 바다에 가야 살 수 있다. 그것을 알고 갈매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먹는다. 겨우 몇 마리 살아서 물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놈이 있다. 거북이가 그렇게 알을 많이 까도 살아남는 것은 몇 마리 안된다고 한다. 일단 커 버리면 갑각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북이를 잡아먹지 못하는데 어릴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조금만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 불쌍하게 잡아 먹힌다. 거북이는 살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야 한다. 동물이지만 어디로 가야 사는지 자기가 살 길을 알고 있다. 하물며 인생이 그 길을 모르면 되겠는가.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복 될 것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똑똑하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도 안된다. 길을 모르니까 헛된 길로 가게 된다. 실제로 사는 이것은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공부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지혜라고 한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래서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한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의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 인생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시작된 역사는 바벨에서 끝났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기서 끝나야 된다. ‘여기가 끝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구나.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하고 끝내야 한다. 이 말을 듣고도 계속 그 길로 가면 앞엿 사람이 하던 그대로 하다 죽는다.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 주신 것은 망하는 길이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 길은 망하는 길이다. 겉으로 보기에야 화려해 보인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봤자 가 보면 바벨탑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노선을 알려는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 어느 편에 붙어야 하는지 알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택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예수는 의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의인’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다. 참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다. 그 사람 안에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수용하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하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딴 소리는 소용없다. 아무리 알아도 구원과는 관계없다. 기독교에 대해서 별것을 다 알아도 소용없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자기는 갈 길이 없다. 잘못하면 그렇게 답답하게 된다.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안다. 남이 하는 것을 보면 잘되고 못된 것을 다 안다. 그런데 자기는 길이 없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 대답할 말이 없다. “예, 나는 이것 저것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래 갖고는 안된다. 길이 없다면 그래도 되지만 하나님이 길을 정해 주셨는데 “내가 좀 찾아 보겠습니다.” 하면 되겠는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실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떤 노선에 서야 한다. 노선이 없이 “나는 지금 길을 찾고 있습니다.” 하면 되겠는가. 길을 모를 때는 되지만 길을 보여 주셨을 때는 그 말을 하면 안된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도 “나는 좀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것은 없겠습니까.” 하고 다니면 죽을 때까지 그러다 똑같다.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찾을 데 가서 찾아야 한다. 문을 두드릴 데 가서 두드려야 열리지 아무 문이나 두드린다고 되겠는가.

나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이 길에 들어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길에 오니까 저절로 모든 것이 풀려나갔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이 길 안에 있다. 다 이 길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천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길을 모르고 읽으면 백년을 읽어도 소용없다. 그만큼 길이 중요하다.

내가 오늘 제시한 것은 동산을 떠나서 아담에서 바벨까지의 역사는 끝나고 새로 부름 받은 사람으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구원의 시작이다. 그 원형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다 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이 계시가 이루어지려면 바벨로 가면 안된다. 바벨에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도 거기서는 안된다. 그리 가 버린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다.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말을 하셨겠는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으니 그런 말을 하신 것이다. 그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

구원의 길에 서야 하나님이 도와 주실 수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길을, 쉽고도 쉬운 길을 제시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 노선을 알고 죽든지 살든지 이 노선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결말이 나지 다른 데 가면 헛일이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추상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다 내가 해보고 하는 말이다. 이 나이에 내가 안해 본 것을 이야기하겠는가. 나도 시간이 바쁜 사람인데 왜 쓰잘 데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겠는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노선에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불어 주시는 바람을 타고 향해

했으면 좋겠다.